

~主内平安~

새해에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중국과 한국에 있을 때 2월은 몹시 추웠지만, 설 연휴만큼은 가족과 친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피지의 2월은 저희가 이곳에 온 이후 3개월 중 가장 더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지금이 한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때라고 하더군요.

1. 몸의 회복

식중독으로 설사가 계속되었지만, 병원 진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은 음식을 오래 보관해 두고 먹으면 쉽게 탈이 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괜찮다니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운 나라에서의 식생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2. 한 달 운전 체험

집주인 Lucy 자매가 한 달간 출타하면서 차 키를 맡겨 주었습니다. 운전석 위치가 달라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몇 번 운전해 보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혼자 지내는 성도의 집을 방문해 심방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매는 무척 기뻐하며 식사까지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3. 특별한 설날



중국에서 설날은 가장 큰 명절로, 멀리 떨어져 지내던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함께 만두를 빚고 풍성한 음식을 나눕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에 대련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를 맞이하지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겨울 휴일 특유의 명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지에 오니 설날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성도는 “피지에는 사계절이 없고, 비 오는 날과 비 오지 않는 날만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다면 설날인지조차 모를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지만, 엘림중국인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중국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했습니다. 각자 비용을 부담했으며, 교회 모임이기에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져오지도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며 가족과 따로 식사하겠다고 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문자로 설명했지만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감사하게도 버스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니 오해가 풀렸고, 결국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 속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삶 공부 수강생들이 진리를 사모하며 끝까지 배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월의 삶 공부는 설날과 성도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두 차례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강생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수업은 무리가 없지만, 한 시간 반을 넘기면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피지 중국인 성도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성도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하며, 배움을 통해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모든 동역자가 순종과 협력 가운데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부 동역자들 사이에서 목회 원칙과 강단 운영 방식에 대해 나눔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약 세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저희의 목회 방향과 강단 원칙을 설명했고, 교회의 상황도 개척 리더인 Lucy 자매님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동역자들은 앞으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 질서를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고, 모든 동역자가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이사와 필요한 가구 및 생활 필수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장보기가 불편하고 교외에 위치해 있어 성도들을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침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월 20일 이후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 필요한 가구와 생활 필수품을 적절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차량 구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개월간 생활해 보니 일상과 사역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의 차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 수바에서
최에녹, 진실라, 이안 드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 2035 6666 02
장산교회 선교부